

#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Marital Intimacy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석사장선웅\*\*

교수정혜정\*\*\*

시간강사 이주연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

Master : Jang, Sun-Woong

Professor : Chung, Hye-Jeong

Lecturer : Lee, Ju-Ye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family-of-origin health,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parents' care, and parents' overprotection) on marital intimacy.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by Internet Survey of 480 married men and women.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amily-of-origin experiences (family-of-origin health,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parents' care, and parents' overprotection) and marital intimacy according to sex, educational level, income, and the first-born child's school level. Second, marital intim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amily-of-origin health,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s' care, bu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arents' overprotection. Third,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indicated that the marital intimacy of married men and women were influenced by education level, income, the first-born child's school level, and family-of-origin health.

▲주요어(Key Words) : 원가족 경험(family-of-origin), 원가족 경험(family-of-origin health), 부모의 결혼만족도(parents' marital satisfaction), 부모의 돌봄(parents' care), 부모의 과보호(parents' overprotection), 부부 친밀감(marital intimacy)

### I. 서론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0년 4만 5천명이던 이혼 건수가 2009년 12만 4천명으로 약 세배 이상 증가하여, 부부 100쌍 당 한 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통계청, 2009). 과거의 이혼사유는 경제적인 문제 및 재해 등 비자발적인 요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사유로 성격차이(46.6%), 배우자의 부정

(8.3%)(통계청, 2009) 등 이혼의 50% 이상이 부부 각자의 부정적 문제로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가족해체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오늘날의 결혼이 남녀 두 사람의 개인적인 결합의 성격이 강화되어 정서적 안정과 애정, 동료감, 행복감의 추구, 자아성장 등 개인의 정서적 측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홍성례·유영주, 2000). 즉 현대사회에서 결혼한 부부는 부부간의 밀접하고 만족스러운 정서적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런 부부 친밀감의 증진은 결혼생활의 만족을 나타내는 반면, 부부 친밀감의 결여는 결혼만족을 낮추고, 불만과 좌절감으로 갈등을 야기 시켜 개인의 신체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내용 중 일부분임.

\*\* 주저자 : 장선웅 (E-mail : swoong23@naver.com)

\*\*\* 교신저자 : 정혜정 (E-mail : chunghj@jbnu.ac.kr)

적, 정서적,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혼사유로 가장 빈번히 거론되어 왔을 정도로(Moss & Schwebel, 1993; Waring, 1984) 건강한 부부관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부관계의 질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결혼만족, 결혼적응, 결혼안정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부부 두 사람만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 및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부부간의 깊이 있는 정서적인 측면을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부부 친밀감은 부부가 각자의 자율성을 토대로 상대방의 결점까지도 수용하는 상호공유적인 인지적, 정서적, 성적 밀착성 정도로(이경희, 1995) 부부 두 사람만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부부 친밀감은 가족상담 및 치료 등 임상현장에서 부부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고 또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가족생활주기로서 자녀 독립 후 부부가 함께 해로할 수 있는 시간 연장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 친밀감에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물며, 현재의 역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원가족의 영향 측면까지 시야를 넓혀 원가족의 역동성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적다.

부부관계 문제를 현재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원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보는 시각은 초기 가족치료 이론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표적인 학자로 Bowen이 있다. Bowen(1972)은 가족문제 접근 시 윗대의 가족 역동성 즉, 원가족에서의 경험을 강조하였다.

원가족에서 겪은 경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원가족 경험은 개인의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며(유은희 · 박성연, 1991; 전춘애 · 박성연, 1994), 각자의 원가족 건강성 정도(양진선, 2004; 이종원, 2002)와 원가족 분화수준(박민지, 2005) 또한 결혼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부모의 결혼생활과 부부관계도 자녀들의 장래 결혼생활과 부부적응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델이 된다(김현정, 1999). 또한 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양육태도 및 애착을 지각하는 방식과 정도에 따라서 자녀의 행동적, 심리적 발달과 특히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은경, 1995; Siegelman 1965). 이처럼 원가족 내에서의 역동적인 경험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 패턴은 세대전이 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결혼생활의 만족과 적응, 갈등에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가족 경험은 개인의 건강한 정서와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임에 분명하고 이런 원가족 경험이 결혼 후 부부의 친밀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원가족 경험이 세대전이 된다(Bowen, 1972)는 점에 주목하여 부부관계가 원가족 경험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원가족 경험은 여러 측면의 의미가 있으나 전반적인 원가족의 건강성 정도와 가족 내 기본적인 두 하

위체계인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축으로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부모의 돌봄, 부모의 과보호로 측정 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질을 좌우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인 부부 친밀감에 주목하여 부부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원가족 경험에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최근 부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율 증가와 가족해체 현상 등 새로운 가족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개선시키고,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가족생활교육이나 상담현장에서 가족간의 상호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원가족 건강성, 부모의 결혼만족도, 부모와의 관계)과 부부 친밀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기혼 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기혼 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은 부부 친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주요개념

#### 1) 원가족 경험

원가족(family-of-origin)은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 오는 동안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으로서(이종원, 2002),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인 삶을 시작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이에 원가족 내에서 접하게 되는 경험들은 일생을 두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대인관계에 중요한 신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가족성원들이 가족 밖의 대인관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Bagarozzi & Aderson, 1989; Collins & Read, 1990; Satir, 1988) 개인의 정신적인 발달과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원가족 경험은 초기 가족치료이론의 주요 초점으로, 특히 Bowen(1978)은 현재의 가족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가족의 영향을 살펴볼 것을 강조하였다. 즉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우리나라는 강력한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인해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정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체 원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하여 원가족에 존재하던 각본에 따라 원가족 내에서 습득한 상호작용 방식대로 결혼한 성인자녀가 이혼 핵가족에도 그대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안정된 결혼생활을 예견하는데 원가족 경험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유은희 · 박성연, 1991; 최현미, 1997; Bowen, 1978; Lewis & Spanier, 1979). 이에 부부 및 가족의 치료과정에서 원가족의 경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정신건강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임상심리학자나 가족치료학자들도 성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병리적인 현상의 중요 원인 중에 하나로 초기의 가족관계에서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김경자, 2004).

이상과 같이 현재 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결혼생활의 만족과 적응 그리고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내에서의 역동적이고 가족간의 상호작용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가 성장하는 동안 원가족에서 경험한 전반적인 분위기로써 원가족 건강성, 부모의 결혼관계의 전반적인 질인 결혼만족도 그리고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과보호를 나타내는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 모든 관계를 통털어 원가족 경험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각각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원가족 건강성은 어린 시절 개인이 성장한 가족 안에서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 가족 상호간의 배려와 수용에 대한 지각 정도로 원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의미한다(최현미, 1997). 즉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원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정도를 가족체계 내에서의 개인과 관계적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다.

원가족 건강성을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 Hovestadt 등(1985)이 건강한 정서체계의 작용은 자율성과 친밀성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이와 같은 개념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원가족 건강성 척도(Family of Origin Scale: FOS)를 개발하였고, 이 척도는 자신이 성장한 가족의 정서적인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도구로 자율성과 친밀감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율성과 친밀감이 모두 높은 경우에 그 가족을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족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결혼생활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결혼생활을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이를 기혼자녀의 입장에서 어린 시절에 느꼈던 부모의 결혼 전반에 대한 평가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관계는 기혼자녀의 입장에서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즉 부모가 자녀에게 반응하는 돌봄과 과보호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부모가 애정과 통제의 정도에 따라

돌봄은 정서적 따뜻함과 공감, 수용으로, 과보호는 과잉통제, 간섭, 의존성으로 표현된다. 부모-자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동시에 매우 복잡한 심리, 사회적 관계로 성장과정에서 어떻게 경험하였는가에 따라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또한 부모-자녀관계는 부모 측에서 볼 때 자녀는 사회화의 최우선적 대상이며, 자녀 측에서는 부모란 최초로 갖게 되는 사회적 경험과 동일시의 대상이며 참조의 모델이란 점에서 이 관계는 교육적이고도 문화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행동은 자녀가 그것을 지각하는 방식과 정도에 따라서 행동적,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이은경, 1995; Siegelman 1965), 개인 능력의 전반적인 영역에까지 확산되는데 이 중 대인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주로 초기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상호작용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이은경, 1995).

이상의 원가족 경험변인들이 기혼남녀의 일반적 특성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원가족 건강성은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하상희 · 정혜정, 2008),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연령이 30대 집단인 여성보다 20대 집단인 여성이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였다.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권정혜 · 채규만, 1999; 김미정, 2001; 김현정, 1999; 조소희, 2008)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로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 및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결과로 일관적이지 않았다.

기혼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이 부모에 대한 애정 및 돌봄에 대해 높게 지각하였고, 학력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거 부모의 돌봄에 대한 자녀의 지각 수준이 높았다(Kenny, 1987).

## 2) 부부 친밀감

가족의 핵심이 되는 부부관계는 개인의 정서적 유대가 중요시되며, 부부간의 성이나 사랑 및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밀접한 관계(이유숙, 1998; 최혜경 등, 1999)이면서, 지속적인 삶을 형성하는데 포괄적인 관계(권희완, 1997)가 된다. 이런 부부관계의 질을 알아보는 한 지표로서, 부부 친밀감은 부부가 각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토대로 상대의 결점까지도 승인하는 인지적, 정서적, 성적 밀접함의 정도를 의미한다(이경희, 1998).

부부 친밀감은 결혼생활의 총체적이고도 전반적인 측면을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평가하는 결혼만족도와는 달리, 부부 두 사람간의 깊이 있는 관계성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 주안점을 두는 개념으로 관계적 속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 더 나아가 부부 친밀감은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 복합적 상위의 개념으로, 애정, 헌신, 성적 욕구와 같은 개념들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이경희, 1998).

임상장면에서는 오래 전부터 부부 친밀감이 결여될 경우, 신체적 증상이나 부부관계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사회적, 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및 정서적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왔다. 또한 부부 친밀감의 결여는 선행연구들에서 이혼사유로 빈번히 거론됨으로써(한남제, 1991), 부부 친밀감은 건강한 부부관계의 필수적 요소로 주목받아 왔다.

이러한 부부 친밀감이 일반적 특성변인(예, 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고현선 · 지금수, 1995; 박민지, 2005; 양진선, 2004)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박민지, 2005; Waring, 1984)로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령 즉 결혼지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부부 친밀감을 낮게 지각하거나(김현정 · 김명자, 1999; 어은주, 1996; 윤경자, 1998; 홍순건, 2006),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김화자 · 윤종희, 1991; 임선영, 2006; 정현숙, 2001)도 있다. 또한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친밀감을 높게 지각하였다(박민지, 2005; 박은옥, 2001; 유은희 · 박성연, 1991; 이미숙, 1990; 최규련, 1999; 하상희 · 정혜정, 2000).

## 2.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의 관계

우선 원가족 경험변인 중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 친밀감간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의 원가족건강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경우 부부 친밀감(김순기, 2001; 김현정 · 김명자, 1999; 박민지, 2006; 양진선, 2004), 결혼만족도(김현정, 1999; 전춘애 · 박성연, 1994; 하상희 · 정혜정, 2008), 결혼적응(전춘애 · 박성연, 1994; Couillard, 1990)이 높게 나타났고, 원가족 건강성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현재 가족의 건강성, 부부간의 관계와 적응 그리고 갈등과 폭력 등 전반적인 가족체계 기능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최진숙, 2006). 또한, Framo(1976)는 현재의 결혼생활이나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배우자 원가족에서의 관계상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자신의 원가족과의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현재의 가족에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원가족 경험 변인 중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현재 기혼 남녀 부부의 친밀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결혼생활의 질과 자녀의 결혼생활의 질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즉 부모

의 결혼생활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의 결혼생활의 질이 높은(박찬미 · 서병숙, 1987; 최지희, 1984; Lewis & Spanier, 1979) 반면, 부모의 결혼을 불행하다고 지각할수록 낮은 생활 만족도를 보였다(전춘애 · 박성연, 1994; Amato & Booth, 1991). 또한 한 부모에게서 자란 여성의 결혼생활은 해체될 위험성이 높고, 남성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미치는 영향이 여성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최진숙, 2006). 즉 원가족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갈등을 경험한 성인 자녀들은 결혼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나 감정이 적으며, 이혼을 좀 더 쉽게 수용한다는 결과(Lawrence et al., 1984; Kinnaird & Gerrard, 1986)와 부모의 결혼 상태와 결혼 만족도는 부부의 결혼 안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결혼생활은 자녀의 결혼생활에 중요 관련요소(Glenn & Kramer, 1987)가 된다. 한편, 부모의 결혼의 질이 아들의 결혼의 질은 예측했으나 딸의 결혼의 질은 예측하지 못했다는 연구도 있다(Feng et al., 1999; Miller et al., 2004).

마지막으로, 원가족 경험 변인에서 부모-자녀와의 관계와 부부 친밀감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릴 때 경험한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부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전현진 · 박성연, 1999; 유은희 · 박성연, 1991; Cohn et al., 1992). 부모와의 어린 시절 애착 및 자율성이 균형있게 발달한 집단의 기혼자녀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으며(유은희 · 박성연, 1991), 부모와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밀착됐거나 또는 단절되지 않았을 때 자녀의 결혼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유은희 · 박성연, 1989; Bowen, 1976).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7년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마케팅 조사 전문 업체인 (주)엠브레인이 보유한 패널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지역(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과 성별 그리고 첫 자녀의 학교를 초, 중, 고로 나누어 사전에 먼저 할당하는 편의할당표본추출법으로 선정 하였으며, 480명의 질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인터넷 조사는 웹페이지 형식으로 제작된 온라인 설문지를 대표 표본의 메일로 발송하여 응답을 요청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너무 빨리 응답하거나 문항을 빠뜨리고 응답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응답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웹을 이용한 인터넷 조사는 바로 읽고 응답할 수 있으므로 설문 대상자들이 응답하기 편할 뿐 아니라 설문에 응답함과 동시에 컴퓨터에 자료가 입력되므로, 자료의 수집과 정리 입력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응답하지 않거나 하나를 선택하는 문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자	240(50.0)	종교	유	210(43.8)
	여자	240(50.0)		무	270(55.2)
결혼상태	초혼	450(93.8)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258(53.8)
	기타	30( 6.3)		홀벌이 부부	222(46.3)
결혼형태	중매혼	87(18.1)	첫 자녀 학교급별	초등생	160(33.3)
	연애혼	288(60.0)		중등생	160(33.3)
	중매반연애반	105(21.9)		고등학생	160(33.3)
직업	전문, 행정직	105(21.7)	교육수준	고졸 이하	175(36.5)
	판매, 서비스직	209(43.5)		대졸	248(51.7)
	생산, 단순노무직	77(16.0)		대학원 이상	57(11.9)
	가사 및 기타	90(18.8)	연령	35세 이하	57(11.9)
	서울특별시	90(18.8)		36~40세	133(27.7)
경기도	90(18.8)	41~45세		155(32.3)	
충청도	90(18.8)	46세 이상		135(28.1)	
전라도	90(18.8)	평균		42세	
거주지	경상도	90(18.8)	결혼기간	10년 미만	52(10.8)
	강원, 제주도	30( 6.3)		10~15년 미만	153(31.9)
	200만원 이하	86(17.9)		15~20년 미만	181(37.7)
	201~300만원	127(26.5)		20년 이상	94(19.6)
	301~400만원	124(25.8)		평균	15년
월 평균소득	401만원 이상	143(29.8)			
	평균	373만원			

항에서 두 개 이상 선택하였을 때 오류를 알려주는 기능을 프로그램화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신뢰성도 높을 수 있다. 그리고 회신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전자메일을 통해 쉽게 독촉할 수 있으며 응답자들이 편한 시간대를 선택하여 응답하므로 응답의 질을 높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성대계·시기자, 2006).

무엇보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률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인터넷 설문조사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해 줄 수 있고, 전국 표집과 편의할당표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도에 거주하며, 첫째 자녀가 초등, 중등, 고등학생인 기혼남녀를 사전에 할당하여, 남성과 여성 각 240명(50.0%)씩, 첫 자녀의 학년이 초, 중, 고 각 160명(33.3%)씩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연령은 41~45세 미만이 155명(32%)를 차지하였고 평균연령은 42세 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248명(51.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직업은 판매, 서비스직이 209명(43.5%), 전문·행정직이 105명(21.7%), 생산·단순노무직이 77명(16%), 전업주부 및 기타가 90명(18.8%)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401만원 이상이 143명(29.8%), 301~400만원이 124명(25.8%), 201~300만원이 127명(26.5%), 200만원 이하가 86명(17.9%)이었으며 평균소득은 373만원이었다. 결혼형태는 연애혼이 288명

(60%)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기간은 15~20년 미만이 181명(37.7%), 10~15년 미만은 153명(31.9%)이었고, 평균 결혼기간은 15년으로 나타났으며, 258명(53.8%)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

## 2. 측정도구

### 1) 원가족 경험 변인

#### ① 원가족 건강성 척도

원가족 건강성은 Hovestadt와 그의 동료들(1985)이 제작한 원가족 척도(Family of Origin Scale)를 기초로 한국 가족의 정서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최현미(1997)의 원가족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최현미(1997)의 원가족 척도는 총 8개의 하위요인(원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갈등해소, 분리와 상실의 수용, 다른 가족원에 대한 허용성, 가족의 화목, 확대 가족내 독립성, 공동체 의식, 가족의 공평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지배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원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the Family of Origin scale-16)' 요인 16 문항 중 부모의 결혼만족도 문항 및 부모와의 관계(돌봄과 과보호) 문항들과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들을 제외한 최종 5문항만을 연구자가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이 5문항은 원가족에 대한 분위기와 화목정도, 가족원간에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고 허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각 문항에 대해 개인이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에 대한 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 ② 부모의 결혼만족도 척도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MS(Kansas-Marital Satisfaction Scale)척도 3문항에 한 문장을 더 첨가한 정현숙(2001)의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 자신의 결혼생활 만족도(‘부모님은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와 부모님의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부모님은 서로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의 서로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만족도(‘부모님은 서로에 대해 배우자로서 얼마나 만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및 자녀의 부모로서의 만족도(‘부모님은 서로가 자녀들의 부모로서의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를 과거 성장기에 지각한 자신의 부모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느낌을 회고해서 답변하게 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불만족(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7점)까지의 7점 Likert식 척도이므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 ③ 부모와의 관계 척도

기혼남녀가 원가족에서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er와 그의 동료들(1979)이 제작한 PBI(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한국에 맞게 제작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송지영(1992)의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16세 이전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지각된 부모와의 관계를 돌봄 차원(12문항)과 과보호 차원(13문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돌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1, 부모의 과보호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4 이었다.

### 2) 부부 친밀감 척도

기혼남녀 자신의 부부 친밀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경희(1998)가 제작한 부부 친밀감 척도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적 친밀감(부부가 상대방에 관해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정도)에 관한 5문항, 정서적 친밀감(부부가 상대방과 함께 느끼는 정서적 밀접함의 정도)에 관한 문항 5문항, 성적 친밀감(부부가 성을 개방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 증진을 위한 한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관한 5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통계 분석 결과 하위영역인 인지적, 정서적, 성적 영역의 상관계수가 각각 .73, .62, .68로 서로 상관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세 영역을 합한 점수를 부부 친밀감으로 사용하였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부부 친밀감 3영역을 합쳐서 상관을 살펴 보았다(양진선, 2004). 본 연구에서 부부 친밀감 세 영역을 합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 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원가족 경험이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육수준, 월 소득, 첫 자녀 학교 급별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의 차이는 원가족 경험의 하위요인 중 부모의 과보호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기혼 여성이 기혼 남성보다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원가족 경험의 하위요인들 중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과보호, 그리고 부부 친밀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기혼남녀의 학력이 고졸이하보다는 대학원 이상일 때 부모의 돌봄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지각했고, 고졸 이하보다 대학교 이상일 때 부모의 과보호를 더 적게 받은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부부 친밀감은 고졸이하보다 대졸, 대학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원가족 경험 변인들 중 원가족 건강성, 부모결혼만족도와 부부 친밀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소득의 정도가 401만원 이상의 집단이 400만원 이하의 집단보다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결혼만족도를 더 높게 지각하였고, 소득이 401만원 이상의 집단이 400만원 이하의 집단보다 부부 친밀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원가족 건강성, 부모결혼만족도 및 부부 친밀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표 2> 성별, 교육수준, 월 소득 및 첫 자녀 학년 급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M(SD)/D

		원가족 경험				부부 친밀감 (5점 척도)
		원가족건강성 (5점 척도)	부모결혼만족도 (7점 척도)	부모의 돌봄 (4점 척도)	부모의 과보호 (4점 척도)	
성 별	남	3.24 (.49)	4.40 (1.36)	2.86 (.45)	2.08 (.36)	3.44 (.66)
	여	3.23 (.54)	4.17 (1.46)	2.79 (.52)	2.79 (.39)	3.33 (.70)
	t 값	-.14	1.77	1.59	-2.75**	1.83
교육수준	고졸 이하	3.22 (.54)	4.19 (1.36)	2.76 (.53)b	2.21 (.41)a	3.22 (.71)b
	대졸	3.24 (.50)	4.28 (1.44)	2.84 (.46)ab	2.09 (.37)b	3.45 (.62)a
	대학원 이상	3.27 (.50)	4.60 (1.44)	2.96 (.39)a	2.03 (.28)b	3.59 (.62)a
	F 값	.23	1.82	3.72*	7.50**	9.26***
월 소득	200만원 이하	3.19 (.56)b	4.30 (1.43)ab	2.78 (.51)	2.15 (.37)	3.29 (.68)b
	201~300	3.15 (.51)b	3.99 (1.36)b	2.78 (.49)	2.17 (.38)	3.31 (.71)b
	301~400	3.22 (.52)b	4.19 (1.33)b	2.81 (.47)	2.14 (.39)	3.32 (.66)b
	401만원 이상	3.35 (.46)a	4.61 (1.47)a	2.90 (.48)	2.07 (.38)	3.57 (.66)a
	F 값	3.90**	4.62**	1.78	1.63	5.14**
첫 자녀 학교 급별	초등	3.18 (.56)	4.07 (.55)	2.79 (.51)	2.11 (.38)	3.50 (.70)a
	중등	3.27 (.47)	4.38 (1.31)	2.85 (.45)	2.11 (.38)	3.37 (.60)ab
	고등	3.25 (.50)	4.40 (1.44)	2.83 (.50)	2.17 (.39)	3.29 (.73)b
	F 값	1.33	2.77	.72	1.40	3.75*

\*p<.05, \*\*p<.01, \*\*\*p<.001

<표 3>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간의 상관관계

변인	원가족 경험				부부 친밀감
	원가족 건강성	부모결혼만족도	부모돌봄	부모 과보호	
부부 친밀감	.24***	.17***	.26***	-.22***	-
M(SD)	3.24(.51)	4.28(1.41)	2.83(.48)	2.13(.38)	3.38(.68)

\*\*\*p<.001

마지막으로 첫 자녀 학교 급별에 따른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의 차이는 원가족 경험 변인인 원가족 건강성, 부모결혼만족도, 부모의 돌봄, 부모의 과보호 모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부부 친밀감은 첫 자녀 학교 급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첫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보다 초등학생일 때 부부 친밀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 2.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간의 상관분석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원가족 경험 변인 중 원가족 건강성( $r = .24$ ), 부모결혼만족도( $r = .17$ ) 및 부모의 돌봄( $r = .26$ )은 부부 친밀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던 반면, 부모와의 과보호( $r = -.22$ )는 부부 친밀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결혼만족도 및 부모의 돌봄 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현재 기혼남녀 자신의 부부 친밀감을 더 높게 지각하나, 부모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부 친밀감은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시절 원가족 경험이 현재 부부간의 친밀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 3.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일반적 특성 변인들과 원가족 경험 변인이 기혼남녀의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앞서 차이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교육수준, 월 소득, 첫 자녀의 학교 급별을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여 첫 번째 단계에 투입하였다. 이때 첫 자녀의 학교 급별 요인은 명목변수로 앞서 실시된 차이분석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Duncan test 결과를 바탕으로 첫 자녀가 초등 = 0, 첫 자녀가 중·고등 = 1로 가변수 처리하였고, 교육수준과 월 소득은 등간척도인 원자료 데이터를 투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가족 경험 변인인 원가족 건강성, 부모결혼만족도, 부모의

&lt;표 4&gt; 부부 친밀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 인		부부 친밀감	
		model I	model II
		$\beta$	$\beta$
통제변인	교육수준	.16**	.13**
	월 소득	.12**	.09*
	첫 자녀 학교 급별 <sup>a</sup>	-.13**	-.14**
원 가족 경험	원가족 건강성		.11*
	부모결혼만족도		.03
	부모의 돌봄		.10
	부모의 과보호		-.06
F-value		10.19***	9.67***
R <sup>2</sup>		.06	.13
R <sup>2</sup> -Change			.07
Durbin-Watson		2.06	

\*p&lt;.05, \*\*p&lt;.01, \*\*\*p&lt;.001

<sup>a</sup>첫 자녀 학교 급별: 초등 0, 중·고등 1

돌봄, 부모의 과보호를 투입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리고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통계량을 산출하여 잔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6으로 2에 가까우므로 잔차간에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부 친밀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6%였고, 교육수준, 월 소득, 첫 자녀 학교 급별이 모두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많을수록, 첫 자녀 학교 급별이 초등집단일 경우 부부 친밀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인에 원가족 경험 변인이 추가 투입되면서 설명력이 7% 증가하여 총 13%를 나타냈고, 교육수준, 월 소득, 첫 자녀의 학교 급별 및 원가족 경험 변인 중 원가족 건강성이 부부 친밀감을 예측하는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많을수록, 첫 자녀 학교 급별이 초등 집단일 경우 및 원가족 건강성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경우 부부간 친밀감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원가족 건강성, 부모 결혼만족도, 부모의 돌봄, 부모의 과보호)과 부부 친밀감 간의 상관관계 및 원가족 경험이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변인에 따른 원가족 경험, 부부 친밀감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교육수준, 월 소득 및 첫 자녀 학년 급별에 따라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에 차이가 있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의 과보호를 더 높게 지각했고,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대체로 남아에게는 성취와 독립심을 강조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덜 처벌적이고 더 간섭하며 신체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최난경, 2003; Russell & Russell, 1987)는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월 소득이 401만원 이상 집단이 400만원 이하 집단보다 원가족 건강성,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 친밀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부 친밀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김명희, 2006)와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김화자·윤종희, 1991; 박수선·김명자, 1996; 박은옥, 2001; 박찬미·서병숙, 1987; 이동원, 1988; 최규련, 1994)와 일치하며, 소득과 결혼만족도는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조은경, 2001; 홍성례·유영주, 2000)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고졸이하 집단보다 대학원 이상인 집단이 부모의 돌봄을 높게 지각한 반면, 부모의 과보호는 대졸 이상 집단보다 고졸 이하 집단이 더 높게 지각하였다. 부부 친밀감은 고졸 이하집단보다 대졸이상 집단이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이나 부부 친밀감이 높다는 많은 연구결과(강혜숙, 2003; 박수선·김명자, 1996; 오선주, 2000; 유은희·박성연, 1991; 최규련, 1988; 하상희·정혜정, 2000)와 일치했다. 이는 교육수준 자체가 의사소통 기술과 문제해결 능력을 증가시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교육수준과 부부 친밀감이 정적 상관을 보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보상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으나, 교육수준과 결혼생활의 안정성은 전적으로 정적인 일직선상의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즉 Houseknecht와 Spanier(1980)의 연구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보다 교육의 정도가 더 높은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들이 별거나 이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Whyte(1990)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교육정도가 높으면 좀 더 안정되고 질이 높은 결혼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6).

그리고 첫 자녀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보다 초등학생인 경우 부부 친밀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첫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가족간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첫 자녀가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기의 부모는 부모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자녀 때문에 걱정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부부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Lerner & Spanier, 1979), 가족생활주기 중 첫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 직장일과 부부로서의 역할 및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갈등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U모양의 바닥을 이룬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7).

둘째, 원가족 경험(원가족 건강성, 부모의 결혼만족도, 부모의 돌봄, 부모의 과보호)과 부부 친밀감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부부 친밀감은 원가족 건강성,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부모의 돌봄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부모의 과보호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 친밀감이 정적상관이 있고(양진선, 2004),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기혼자녀의 결혼만족도는 정적상관이 있으며(박찬미·서병숙, 1987; 유은희·박성연, 1989; 최지희, 1984), 아동기 때 자신의 부모와의 상호관계를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모들은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높게 보고한 연구들(전현진·박성연, 1999; Goodrich et al., 1968; Snyder, 1998)과 일치한다.

셋째, 원가족 경험이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첫 자녀의 학교 급별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교육수준, 원가족 건강성, 월 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첫 자녀가 초등학생일수록, 교육수준과 월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부 친밀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릴 때 경험한 원가족 건강성이 성장한 후 결혼안정성(전춘애·박성연, 1994), 결혼적응(권정란, 2005; 김현정, 1999), 부부 친밀감(남순현·한성열, 2003)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개인은 부부관계에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부모와의 관계를 부부관계에서 재현하기 쉽다는 연구결과(남순현·한성열, 2003)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모의 결혼만족도, 부모의 돌봄, 부모의 과보호는 부부 친밀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부부 친밀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부부 친밀감에 영향을 미친 원가족 경험 변인은 원가족 건강성 뿐 이었는데, 이러한 결

과는 변인들 간의 개념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가족임을 뜻하고, 건강한 가족은 가족의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격려(최현미, 1997)하므로 부부관계가 원만하며 또 자녀 돌봄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원가족 영향에 관한 연구들(남순현·한성열, 2002; 유은희·박성연, 1989; 전춘애·박성연, 1994)은 원가족 영향력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주로 강조하여, 각 개인의 건강한 정서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원가족 건강성이 부부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가족 영향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Bowen의 가족체계론적 견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은 한 개인이 성장하고 자라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system)로 보면서, 가족을 하나의 관계체계임과 동시에 역동적인 정서체계로 보았다. 현대 한국가족이 주로 핵가족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부모와 자녀는 일정한 체계를 형성하여 세대간에 연결이 되어 있고, 정서적인 문제는 개인을 넘어서 핵가족 뿐 만 아니라 여러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부부관계는 그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결과이고, 이는 또 그 조부모와의 관계의 결과로 수세대로 거슬러 이어진다(이삼연, 2004).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기혼남녀의 원가족 건강성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가족체계론적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부부관계 연구는 단지 부부체계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현재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시켜서 체계론적 관점으로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 제한점을 찾는다면 첫째, 자료수집이 인터넷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졌고, 가족생활주기에서 학동기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기혼남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기혼남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계층과 다양한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원가족 경험 변인은 기혼남녀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이며, 과거 회상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응답에 대한 정확성과 이를 객관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지각을 사용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비판들 중의 하나는 지각이 '실재'와 관련이 적거나 또는 가족 내에서 실제로 발생된 사건들과도 관련이 적다는 것이다(김순기, 2001; Hovestadt et al., 198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들이 그들의 가족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전춘애·박성연, 1994).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지각'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교화된 측정도구가 요구되

며, 한 성원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보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원가족 경험 변인이 큰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원가족 경험 변인을 찾아 변인간의 상호 관련된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강혜숙(2003).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현선·지금수(1995).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71-83.
- 권정란(2005).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 분화에 따른 부부 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채규만(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타당화 연구 2.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2), 139-150.
- 권희완(1997).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35-70.
- 김경자(2004).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희(2006).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 친밀감과 부부의사소통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2001). **부부들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1996).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한국생활과학회지**, 5(2), 52-72.
- 김현정(1999). **원가족 경험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김명자(1999). **근원가족 건강도, 자아존중감, 결혼적응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39-60.
- 김화자·윤종희(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55-170.
- 남순현·한성열(2002).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및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33-49.
- \_\_\_\_\_ (2003). **신혼기 부부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 후 친밀감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2(3), 505-523.
- 박민지(2005). **부부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수준과 가족규칙 및 부부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선·김명자(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아분화수준과 결혼만족도**. **한국생활과학연구지**, 11(2), 41-63.
- 박은옥(200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4), 508-517.
- 박의순(1997). **애착과정으로 본 한국부부의 사랑-대부모 애착, 부부 애착과 부부 사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찬미·서병숙(1987).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45-162.
- 성태제·시기자(2006). **연구방법론**. 학지사
- 송지영(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검증**. **신경정신의학**, 31(5), 979-992.
- 양진선(2004). **부부 친밀감과 자아존중감 및 원가족 건강성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주(1996). **한국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계 변인 연구; 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7).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오선주(2000).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인성특성의 동질성 여부와 결혼갈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23-42.
- 유은희·박성연(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 \_\_\_\_\_ (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1), 139-158.
- 윤경자(1998). **1998년도 제51차 춘계학술대회 (주제: 국가경제 위기와 가정의 대처 전략) 분야별 발표논문 초록 - 가족, 가정관리, 의생활, 주생활, 기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결혼만족도: 한국부인들과 미국부인들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6(4), 271-272.
- 이경희(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235-249.
- \_\_\_\_\_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원(1988). **도시 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숙(1990). **한국에서의 결혼만족 연구에 대한 고찰 및 평가**. **생활과학연구논집**, 10(1), 27-71.
- 이삼연(2004). **가족체계이론, 애착이론, 그리고 문화**. **경남지역**

- 연구, **10(1)**, 89-108.
- 이유숙(1998).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와 부부간의 사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1995).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2002). 부부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신영(2006). 결혼 지속연수에 따른 중산층 여성의 결혼만족도 (RKMS)와 갈등유형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진 · 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20(3)**, 153-169.
- 전춘애 · 박성연(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4)**, 117-133.
- 정현숙(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224.
- 조소희(2008). 기혼남녀의 원가족경험과 자기분화가 핵가족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73-889.
- 조은경(2001).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1988).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_\_\_\_\_ (1999).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 및 자녀요인,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2)**, 99-112.
- 최난경(2003).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희(1984). 결혼 전, 후 환경이 부부관계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숙(2006). 부부갈등과 원가족과의 상관관계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미(1997). 원가족 척도 연구 : 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경 · 강진경 · 신수진(1999).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이론의 한국 부부애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47-59.
- 하상희 · 정혜정(2000).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가정과학회지*, **3(2)**, 27-38.
- 하상희 · 정혜정(2008).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상담학연구*, **9(2)**, 789-806.
- 한남제(1991). *현대한국사회문제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홍성례 · 유영주(2000).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61-76.
- 홍순건(2006). 건강한 부부의 특징- *Gott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0). 2009년 인구주택 총조사.
- Amato, P. R., & Booth, A. (1991). Consequences of parental divorce and marital unhappiness for adult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Forces*, **69**, 895-914.
- Bagarozzi, D. A., & Anderson, S. A. (1989). *Personal, Marital family myths: Theoretical formations and clinical strategies*. N.Y.: Guilford Press.
- Bowen, M. (1972). 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 D. Jackson(Ed.). *In family interaction: A dialogue between family researchers and family therapists*. N.Y.: Springer Publishing Co.
- \_\_\_\_\_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J.(Ed.). *Family Therapy*. N.Y.: Gardner Press.
- \_\_\_\_\_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Y. & London: Jason Aronson, Inc.
- Canfield, B. S. (1983).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selected demographic factors predictor of current family functi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ast Texas State University.
- Chon, D. A., Silver, D. H. Cowan, C. P., & Person, J. (1992). Working models of childhood attachment and couple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 **13(4)**, 132-149.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uillard, G. C.(1990). *Differences in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with similar and dissimilar levels of emotional health in their family-of-orig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Feng, D., Giarrusso, R., Bengtson, V., & Frye, N. (199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quality and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451-463.
- Fisher, L. R. (1983). Mother and Mother-in-la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1)**, 187-202.
- Framo, J. L. (1976). Family of origin as a therapeutic resource for adults in marital and family therapy: You can and should go home again. *Family Process*, **15**,

- 193-210.
- Glenn, N. D., & Kramer, K. B. (1987). The marriages and divorces of the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811-825.
- Goodrich, W., Ryder, R., & Rauseh, H. (1968). Patterns of newlywed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383-389.
- Guerin, P. J., Fay, L. F., Burden, S. L., & Kautto, J. G. (1987). *The Evaluation and Treatment of Marital Conflict: A Four-Stage Approach*. Basic Books.
-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P., Cochran, S. W., & Fine, M. (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3), 287-297.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7.
- Kinnaid, K. L., & Gerrard, M. (1986). Premarital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Divorce among Young Women as a Function of Their Mothers' Marital Statu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4), 757-765.
- Lawrence, H., Ganong, & Coleman, M. (1984). The Effects of remarriage on children: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Family Relations*, 33, 389-406.
- Lewi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Hill, R., Nye, L., & Reiss, I.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Y.: Free Press.
- Miller, R. B., Anderson, S., & Keala, D. K. (2004). Is Bowen theory valid? A review of basic researc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0, 281-300.
- Moss, B. & Schwebel, A. (1993). *Marriage and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42, 31-37.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Rice, P. F. (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 Allyn and Bacon.
- Russell, G., & Russell, A. (1987),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1573-1585.
- Satir, V. (1988). *The new peoplemaking*. Mountain View,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iegelman, M. (1965). College student personality correlates of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558-564.
- Snyder, J. R. (1998).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What about gender? *Developmental review*, 18, 390-420.
- Waring, E. M. (1984). The measurement of marital intimac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4), 185-192.
- Whyte, M. K. (1990). *Dating, mating, and marriage*. N.Y.: Aldine de Gruyter.

□ 접수 일 : 2010년 09월 15일

□ 심사 일 : 2010년 10월 07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02월 09일